재계 정기인사 키워드 삼성 '이재용' 현대차 '모빌리티' SK 'ESG' LG '안정'

안정기 접어든 '구광모 체제' LG, 예년보다 인사 소폭 단행할 듯

이재용 '사법리스크'에 인사 늦춰질수도…회장 승진 여부 주목

SK, 'ESG 경영' 인사에 반영될듯…예년보다 인사폭 작을 전망

현대차, 수시인사로 인사폭 작지만 '모빌리티 혁명' 반영될 듯

이달 말 LG를 시작으로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의 임원 인사가 본격화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미국 대통령 선거, 미·중 갈등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변화보다는 안정 기조를 택할것으로 예상되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이번 주까지 마치고, 이달 말 조직개편과 함께 사장단과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구광모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LG그룹은 올해 인사에서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구 회장이 취임한 2018년에는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급 11명을 교체, 지난해에는 5명의 최고경영진을 대거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회장단 대부분이 유임할 전망이나 코로나19 속에서도 올 3분기까지 2조가 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LG전자 권봉석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사장은 사장직을 맡은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재계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분사에 따른 인사도 예상된다. LG화학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LG에너지솔루션'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철 부회장이 에너지솔루션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12월 첫째주 사장단 인사를 해왔지만,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 이슈로 인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고 사법리스크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도 호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부문장 부회장, 김현석 가전(CE)부문장 사장, 고동진 무선(IM)부문장 사장 등 대표이사 3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별세로 회장 승진이 예고되고 있으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등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도 다음달 초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예정돼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인사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인사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위원회 가운데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이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으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에너지·화학 위원장으로 재선임돼 핵심 계열사 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희 SK하이닉스사장도 지난해 선임된데다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통상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임원인사를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시인사를 도입, 임원인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다만 정의선 회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모빌리티 혁명'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인사에도 이같은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디자인 기반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를 신설하고 담당 임원에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신봉우 기자

신일전자, 겨울가전 로드쇼 진행 신일전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겨울가전 로드쇼를 열고 2주간 전국 점포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홈쇼핑 인기제품으로 꼽히는 '초절전 에코히터'도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특허받은 고효율 방열판을 탑재해 낮은 소비전력으로 높은 발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 1월 출시' 갤S 21, S펜 달고 나올 듯

울트라 모델에만 S펜 지원…S펜은 별도 판매 예상

내년 1월 출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21'에 갤럭시노트의 상징인 S펜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S펜은 그동안 삼성 갤럭시노트 시리즈에서만 지원이 돼왔는데, '갤럭시 S' 시리즈에도 처음으로 장착된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S21 시리즈는 S21·S21플러스·S21울트라 등 총 3종으로 출시되며 모델크기는 각각 6.2인치, 6.7인치, 6.8인치다.

갤럭시S21 울트라가 S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트 시리즈처럼 스마트폰 내부에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두지 않았고, 기본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펜을 케이스와 함께 별도로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의 경우, 갤럭시S21 울트라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전문매체인 씨넷은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은 1억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그대로 지원하며, 4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빠지는 대신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가 추가돼 광학 10배줌, 최대 100배줌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갤럭시S21과 갤럭시S21플러스에는 전작과 같은 트리플 카메라(12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이다.

모든 모델이 초당 120개 이미지를 보여줘 더 부드러운 화면을 나타내는 120헤르츠(Hz) 주사율을 지원하며, 갤럭시S21과 갤럭시S21플러스에는 FHD+ 저온폴리실리콘(LTPS) 디스플레이가,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에는 WQHD+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소재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전망이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최대 밝기가 1600니트로 전작(1400니트)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S21 4000mAh, 갤럭시S21플러스 4800mAh, 갤럭시S21 울트라가 5000mAh이고, 25W(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21 후면 소재는 저렴한 플라스틱을, 울트라는 유리 케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래그십(전략) 스마트폰의 후면부는 보통 유리를 마감재로 사용한다. 갤럭시S21 플러스 후면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유나기자

기업 10곳 중 4곳 "Z세대 신입사원 불만족"

책임감·배려 등 부족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Z세대 신입사원을 맞게 된 기업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요즘 세대 신입사원'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6%는 과거 신입사원과 비교해 Z세대 신입사원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비슷하다'는 응답은 39.5%였고, '만족한다'는 17.9%에 불과했다.

실제로 Z세대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0점'으로 그리 높지 않게 집계됐다.조직적응력도 이전 신입사원에 비해 '낮아졌다'(54.1%)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Z세대 신입사원들이 이전 세대 신입사원보다 부족한 것으로는 '책임감'(41.6%, 복수응답)을 1위로 꼽았다. 다음은 '배려 및 희생정신'(36.2%), '근성, 인내력, 강한 소신 및 추진력'(34.9%), '기업문화 적응력'(23.2%),'협업 능력'(22.2%), '대인관계 구축 능력'(21.9%) 등의 순서였다.

반면, Z세대의 최고 강점으로는 단연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43.6%, 복수응답)을 꼽았다. 다음은 '빠른 이해와 판단'(33.9%), '다양한 활동 경험'(29.1%), '외국어 등 글로벌 역량(20.2%), '의사소통능력'(8.2%), '긍정적인 사고방식'(5.9%) 등을 들었다.

이 같은 강점이 회사에서 잘 발휘될 때는 '디지털, SNS 등 활용시'(38.3%, 복수응답)가 역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습득 및 상황 판단이 빠를 때'(31.9%)가 바로 뒤를 이었고, '같은 일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때'(27.3%),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타진할 때'(24.2%), '불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을 때'(9.2%)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미희기자

규제 완화·비대면 여행 인기에 '튜닝 캠핑카' 3배 급증

교통안전공단, 평균 작업비용 1050만원

캠핑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 규제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확산으로 튜닝 캠핑카가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규제가 완화된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약 8개월간 튜닝 캠핑카 등록 대수가 5618대로 작년 같은 기간 1529대에 비해 26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튜닝 캠핑카가 급증한 것은 규제 완화로 튜닝 가능 차종이 확대되고 지난 5월27일부터 튜닝 허용범위 확대로 화물차 캠퍼가 허용된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캠퍼는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비대면 관광수단인 캠핑(차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튜닝산업이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5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2건(9.6%), 경북 431건(7.6%) 순으로 캠핑카 튜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비해 4배 이상(401.9%) 증가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383.7%(165건), 충남 311.4%(218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차종별로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가 2717건으로 가장 많고, 승합차가 2481건, 승용차 412건, 특수차 42건 등으로 나타났다.

캠핑카 튜닝의 평균 작업비용은 1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승용·승합(스타렉스 등) 200~1000만원(평균 600만원), 중형 승합(카운티 이상) 400~3000만원(평균 1700만원), 화물(특수) 200~1500만원(평균 850만원) 등이었다.

공단은 캠핑카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캠핑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안전한 튜닝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튜닝 규제 완화로 국내 튜닝산업이 활성화됐으며 향후 튜닝기준의 제도정비를 통해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